전 남편 시신은 어디에…

국과수, 지난 5일 수거된 뼈 동물뼈로 판단
펜션서 수거한 모발에선 유전자 검출 안돼
경찰 "고유정 사건 신고보상금 전단지 배포"

제주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 사건을 수사하며 수거한 뼈는 피해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람 뼈가 아닌 '불상의 동물뼈'로 판단된다는 서면 감정회신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일 고씨 가족 명의의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에서 발견된 모발 56수와 이틀 후 범행이 일어났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수거한 모발 58수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지만,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14일 인천시 재활용업체에서 2박스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추가 수거함에 따라 국과수에 긴급 감정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시신 수습을 위해 주민협조를 구하고자 신고보상금(최대 500만원) 전단지를 만들어 완도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피해자의 시신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에서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두 차례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제주에서 훼손한 시신은 28일 오후 9시30분쯤 완도행 여객선 위에서 7분간 바다로, 김포에서는 31일 새벽 3시12분부터 8분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 유기했다.

특히 고씨는 사전에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했고,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도 전문도구를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현석기자

"골~~~"… U-20 축구 결승 응원전 16일 새벽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간 U-20 FIFA 월드컵 결승 응원전이 펼쳐진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축구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패널티 킥이 성공하자 환호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고유정 현 남편 "아들 사망 정황상 아내 범행 의심스럽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의 현 남편 A(37)씨가 지난 3월 사망한 자신의 아들 죽음이 고씨의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14일 제주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충북경찰에 구두로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논의 끝에 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수사 확대를 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씨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평소 차를 종종 마시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빨리 잠들었다"며 "저 같은 경우 소방관이고 구급대원이다 보니 새벽 출동이 많아 잠귀도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 아이를 봤을 당시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고, 지금도 침대 매트리스에 피가 묻어 있다"며 "언론 보도에는 아이 배에 제가 다리를 올려놓았다고 나왔지만 명백한 오보이며, 경찰 조사 당시 (다리 올려놨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럴 수 있겠다' 대답한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또 A씨는 고씨가 아들을 늦게 데려오려고 했던 정황과 감기를 핑계로 따로 자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애기 둘과 같이 네명이 같이 살자고 고씨와 약속을 하고 청주에 어린이집 등록을 둘다 마친 상태였다"며 "하지만 고씨가 아들 데려오는 것을 계속 뒤로 미뤄서 제 아이만 올라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고씨가 제 아들이 올라오면 감기 때문에 따로 자야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지만 약 먹을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다"며 "자기 애가 없어서 섭섭한 마음에 따로 자겠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청주 오고 싶어 했던 아들이였는데… 제가 애기한테 부끄러워 가지도 못한다"며 "제 목표는 우리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아는 것, 그것 하나 뿐"이라고 호소했다.

B(4)군은 A씨가 고유정과 재혼하기 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다른 방에 있어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지난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씨가 자신의 4살 난 아들 B군을 살해했다며 우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지역 고령 소비자 전자상거래 불만 ⬆

소비자단체·기관 지난해 상담건 분석결과 전년대비 66% 늘어

제주지역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와 제주소비자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도내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상담건수는 799건으로, 전년 722건에 비해 77건(10.7%)이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상담건수 증가율은 30대(5%), 50대(7.2%)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제주지역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가장 많이 상담한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31건)였으며, 이어 택배화물운송서비스(30건), 침대(29건), 스마트폰·휴대폰(26건), 의류·섬유(23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전국과 달리 제주지역에서는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의류·섬유제품 등이 60대 이상 소비자들의 상담 상위 5개 품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수판매방법 중에서는 전자상거래(73건)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TV홈쇼핑(66건)이 다음을 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 상담건수는 전년보다 65.9%(29건) 증가했다.

한편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1000명당 상담건수는 5.8건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중 9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63.3%)이 여성(36.7%)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64세(65.1%)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이번 상담 분석 결과를 기초로 고령소비자 맞춤형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시 폭염 대비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제주시는 폭염으로 인한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들이 많은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 내용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역 내 학교·병원 인근 버스승차대 14개소를 대상으로 에어커튼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청·제주법원 버스정류장에 시범적으로 설치돼 운영중인 에어커튼은 스위치를 누르면 3~5분간 강한 바람이 나와 체감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 유리 천장으로 햇빛이 투과돼 불편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정류장 24개소를 선정하고 천장을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더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석기자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50대 선원 조업중 숨져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선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8시49분쯤 제주시 추자도 서쪽 약 13㎞ 해상에서 조업하던 목포선적 M호(22t, 안강망, 승선원 7명)의 선원 Y(57)씨가 조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경은 헬기를 급파해 Y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Y씨는 결국 숨졌다. 김현석기자

"5·18 망언 규탄 회견 진행 민노총 간부 영장신청 철회"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제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장소에 모인 노동자와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5·18 망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다"며 "그러나 이를 발견한 자유한국당원들이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은 당원들을 막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을 둘러싸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극우세력의 5·18 망언에 동의하기에 정당한 항의행동을 폭행으로 둔갑시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인지 엄중히 묻는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화북 광양 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윈치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고개숙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부전클리닉 ▶조루약물주입법
▶전립선클리닉 ▶남성회성기질환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의원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 제주은행 2F